

# 캐스퍼 EV, 유럽 좁은 길 뚫고 씩씩 달린다

### 현대차·기아, 소형·전기차 인기몰이...친환경차 유럽 공략 강화 1~5월 누적 판매량 20만6023대...i10·i20·모닝 등 판매주역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캐스퍼 등 소형차를 앞세워 유럽 자동차 시장의 비좁은 길을 씩씩 달리고 있다.

유럽연합(EU)의 탄소 배출 규제 강화와 좁은 도로 사정과 같은 유럽 현지 여건에 맞춰 광중급모터스(GGM)의 캐스퍼 일렉트릭(EV) 등 소형 전기차를 포함한 소형차·소형 전기차의 유럽 내 판매 대수가 올해 상반기 기준 20만대를 넘어섰다.

7일 현대차·기아에 따르면 올 1월부터 5월까지 유럽 시장에서 판매한 소형차 누적 대수는 총 20만 6023대다. 두 회사의 유럽 내 소형차 판매 비율은 지난해 43.8%에서 올해 1~5월 51%까지 상승해 전체 판매의 절반을 넘겼다.

특히 현대차의 i10, i20, 기아의 모닝(유럽명 피칸토) 등 기존 내연기관 기반 소형 해치백 모델이 판매 호조를 이어가고 있으며, 각 모델 모두 누적

판매량 100만대를 돌파한 베스트 모델이다.

현대차의 i10은 2008년 유럽형 모델로 첫선을 보인 뒤 2020년까지 100만대를 넘어섰고 올해 5월까지 총 125만798대가 판매됐다. i20 또한 같은 해에 출시돼 2021년 누적 100만대를 돌파했으며, 현재까지 누적 121만2907대가 팔렸다.

기아 모닝은 2004년 유럽 진출 후 100만대 고지를 가장 먼저 넘어선 소형차다. 올해 5월까지 누적 128만 6718대를 기록했다. 특히 올해 1~5월 기준으로 해외 판매량이 5만655대를 기록하며 국내 판매(5383대)의 약 10배에 이르는 실적을 보였다. 이중 유럽에서만 2만7686대가 판매됐다.

현대차·기아는 또 신차 평균 탄소배출 규제 강화를 추진 중인 EU의 흐름에 맞춰 전기차 부문에서도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12월 유럽 시장에 출시된 캐스퍼 일렉트

릭(현지명 인스터)은 불과 6개월 만에 누적 1만 342대의 판매고를 올렸고, 기아의 준중형 전기 SUV 모델인 EV3도 올 들어 5월까지 총 2만8739대를 판매했다.

EV3의 인기로 기아의 유럽 전기차 총 판매량은 지난해 연간 판매량(6만8246대)을 조기에 넘어설 것으로 보이며, 2023년 기록한 사상 최대치인 8만 341대 경신도 기대되고 있다.

현대차와 기아는 유럽 시장 반응에 발맞춰 다양한 소형차 신모델을 추가로 선보일 예정이다. 기아는 지난 2월 개최한 '2025 기아 EV 데이'를 통해 글로벌 전략형 소형 SUV 'EV2' 콘셉트카를 공개했고, 현대차 또한 새로운 엔트리급 전기 SUV 출시를 예고한 상태다.

현대차·기아의 유럽 시장 내 대활약은 좁은 도심도로, 부족한 주차 공간, 실속 위주의 소비 트렌드 등을 분석하고, 유럽 소비자들의 취향을 저격한 덕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현대차·기아는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등 라인업을 통해 유럽 시장 공략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 로봇이 발레파킹...현대차 '주차로봇' 전세계 무료

### 영상 조회수 580만 돌파

주차 로봇이 자동으로 기아 EV3를 주차하는 '기아 EV3 발레 파킹 기술PR' 영상이 글로벌 유력 미디어와 인플루언서를 통해 인기를 끌고 있다.

7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40초 분량의 이 영상은 얇고 넓은 모양의 주차 로봇 한 쌍이 차 아래로 들어가 바퀴를 들고 주차하는 모습이 담겼다.

주차 로봇은 지난해 6월 서울 성동구의 로보 친화형 오피스 빌딩 '팩토리얼 성수'에서 처음 상용화된 서비스다.

이 로봇은 현대차그룹의 부품 계열사인 현대위아가 제작했다. 로봇의 두께는 110mm로 얇고, 라이다 센서를 갖춰 차 아래에서 바퀴의 크기와 위치를 정확히 인식해 들어 올린다.

최고 초속 1.2m의 속도로 최대 2.2t의 차량까지 자동 주차할 수 있다. 전후좌우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어 주차가 어려운 좁은 공간에서도 차량 이동이 가능하다.

화제가 된 영상은 실제 주차 로봇에 사실적인 인공지능(AI) 그래픽을 접목해 로봇이 실제 속도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듯 움직이는 장면을 담았다.

지난해 10월 현대차그룹 유튜브를 통해 공개된 이후 올해 4월경부터 조회수가 급증하며 글로벌 온라인 채널로 퍼져 나갔다.

4월에 미국의 유명 소셜 커뮤니티 레딧의 사이언스 테크앤지니어링 월드에 소개된 것을 계기로 호주의 자동차 인플루언서 슈퍼카 블론디, 타임즈 브라질 유튜브브(CNBC 계열)를 비롯해 포브스 세르비아 등 글로벌 미디어 및 인플루언서 채널에서 주요 콘텐츠로 다뤄졌다.



기아 EV3 발레 파킹 기술PR 영상 캡처. <현대차 제공>

현재까지 약 50곳의 채널에 확산한 영상의 총 조회수는 총 580만여회로 집계됐다. 이들 영상에는 2700여건의 댓글이 달렸으며 75%가량이 긍정적인 반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글로벌 주요 미디어들은 현대차그룹의 주차 로봇을 활용한 영상을 함께 소개하며 세계 각지에서 실제로 활용되는 혁신 기술이라는 사실도 강조했다. 이 로봇은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와 싱가포르 혁신센터(HMGICS) 등 글로벌 생산 거점에서 쓰이고 있다. 단순히

AI로 가상의 이미지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실제 존재하는 기술과 서비스에 AI를 접목, 현실감을 더해 홍보 효과가 큰 것으로 현대차그룹은 분석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글로벌 미디어와 소비자의 높은 관심과 긍정적인 반응을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한 혁신 콘텐츠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차 로봇 영상은 현대자동차그룹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 수입차도 친환경 바람...하이브리드·전기차 인기

### 전체 등록차 중 90% 차지...하이브리드 53.7%·전기차 32.8%

친환경차 바람을 타고 지난달 수입차 시장에 등록된 하이브리드와 전기차가 9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테슬라는 판매 2위에 오르며 또 다시 선전을 이어갔다.

7일 한국수입차협회(KAIDA)에 따르면 지난 6월 수입 승용차 신규 등록 대수가 작년 같은 달보다 9.9% 증가한 2만 7779대로 집계됐다. 전 달(2만 8189대)에 비해서 1.5% 감소했다.

연료별 판매량은 하이브리드(마일드 하이브리드 포함) 1만 4916대(53.7%), 전기(9125대·32.8%), 가솔린(3470대·12.5%), 디젤(268대·1.0%) 등의 순으로 친환경차 비율이 압도적이었다.

전기차는 테슬라의 선전으로 점유율이 전달에 이어 30%대를 넘었다.

차종별로는 테슬라 모델Y가 6162대 팔리며 베스트셀링 모델에 올랐다. 벤츠 E클래스

(2572대), BMW 5시리즈(2255대), 벤츠 GLC(962대), BMW 3시리즈(574대), 벤츠 GLE(561대) 등이 뒤를 이었다.

올 상반기 총 신규 등록 대수는 작년 동기 대비 9.8% 증가한 13만 8120대였다. 지난 5월 한국 시장 진출 후 처음으로 수입차 판매 1위에 올랐던 테슬라는 지난달에는 2위에 이름을 올렸다.

브랜드별 등록 순위에서 BMW가 6553대의 판매량으로 다시 1위를 탈환했고, 테슬라(6377대)가 뒤를 이었다. 이어 메르세데스-벤츠(6037대), 렉서스(1230대), 볼보(1067대), 포르쉐(1056대), 아우디(1042대) 등의 순이었다.

국가별 브랜드 판매량은 유럽 1만 8237대(65.7%), 미국 7141대(25.7%), 일본 2181대(7.9%) 등이었으며, 구매 유형별로는 개인 구매가 65.6%, 법인은 34.4%였다. /김해나 기자 khn@

# BMW, 뉴 1시리즈·뉴 2시리즈 그란쿠페 출시

BMW코리아는 "콤팩트 모델 '뉴 1시리즈'와 '뉴 2시리즈 그란쿠페'를 국내 출시한다"고 7일 밝혔다.

두 모델의 전면부는 이전 모델보다 낮고 넓게 설계됐으며 후면부에선 길게 뻗은 리어라이트와 범퍼로 역동성을 강조했다. 뉴 1시리즈 측면부는 해치백의 콤팩트한 비율이 돋보이고 뉴 2시리즈 그란 쿠페는 4도어 쿠페의 우아함이 특징이다.

실내에는 10.25인치 디지털 계기판, 10.7인치 컨트롤 디스플레이 등을 탑재했고 비전 소제가 할

용된 스포츠 시트가 적용돼 환경까지 생각했다.

사용자 친화적인 'BMW 오퍼레이팅 시스템 9'과 함께 티맵 기반의 한국형 BMW 내비게이션도 장착됐다.

'뉴 120'과 '뉴 220'은 최고출력 204마력과 최대토크 30.6kg·m을, 고성능 모델인 '뉴 M135 xDrive'와 'M235 xDrive'는 최고출력 317마력과 최대토크 40.8kg·m을 발휘한다. 이번에 새로 도입된 '뉴 228 xDrive'의 최고출력은 245마력, 최대토크는 40.8kg·m이다. /김해나 기자 khn@

함께하는 100년 동행

##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꼭!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비서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꼭 바로 바로 확인까지 꼭!

**zgm**  
zgm.the pay 카드

- 비대면 발급전용 상품
- 국내 해외 전 가맹점 10% 할인
- N-페이 온라인 결제 1.7% 할인
- 10대 페이 온라인 결제 1.2% 할인
- 전월 실적 제한없음

(무) All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20만원(일 이상 90일 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 월 5만원으로 만기 시 89% 환급 (매월 변동 가능. 공시율 2023년 6월 기준)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맡기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햇살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 (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용 산 지 점 062)526-0222~3	유 동 지 점 062)512-1984~5	유 덕 지 점 062)373-3235~6	운암백산지점 062)529-5335~6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치 평 지 점 062)381-8212~3	동 립 지 점 062)513-8521~3	동 운 지 점 062)528-2640~2	빛 고을로지점 062)531-1213~5	로컬푸드(시점) 062)364-8400
쌍 촌 지 점 062)381-6551~2	운 암 지 점 062)527-3295~6	배 들 지 점 062)381-1971~2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유타하나로마트 062)373-3235
화 정 지 점 062)372-0421~3	운 천 지 점 062)371-2772~3	상 무 동 지 점 062)372-3741~2	기아지동차지점 062)385-4977~8	애나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